

미국, 고속도로·철도 용지 활용 전력·통신 인프라 공동 구축 추진

해당국가	미국	기관(기업)	미국 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시설물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

- 미국 교통부는 고속도로·철도 용지에 송전·통신 등 기반시설을 공동 배치하는 「미국 상업 대회랑 (AGCC)」을 추진하여 기존 교통부지 활용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복합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
 - 기존 고속도로·철도 용지를 전력·통신 등 선형 기반시설 구축에 공동 활용하여 신규 용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첨단 제조·데이터 산업 등의 증가하는 에너지·통신 인프라 수요에 대응
 - 주 교통부·철도회사 등 교통용지 소유자가 기존 도로·철도 부지에 전력·통신 등 복수의 기반 시설을 공동 배치하는 회랑을 제안하고 민관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
 - 신규 용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교통부지를 활용하고 환경심사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범주형 제외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
 - 교통용지의 기반시설 공동 활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익을 도로·철도 등 교통인프라 개선에 활용하여 민간투자자와 기존 인프라 유지·개량을 연계하는 사업구조를 마련
 - 교통용지 소유자가 기반시설 공동 배치를 통해 사용료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이를 교통시설 개선과 누적된 유지보수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
 - 기존 교통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반시설을 공동 배치하고 Build America Bureau를 중심으로 사업개발·금융·인허가 등에 대한 통합적인 기술지원을 제공
- 자발적·신청 기반의 민관협력 방식으로 사업 대상 회랑을 발굴하고 연방기관의 인허가·금융·기술지원을 집중하여 교통·에너지·통신 인프라의 통합 구축모델을 확산
 - 주정부·철도회사 등 교통용지 소유자가 기반시설 공동 배치에 적합한 회랑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된 회랑에 연방기관의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신청 기반 추진체계를 구축
 - 선정된 회랑에는 관련 연방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검토와 인허가 절차를 조정하고 One Federal Decision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연방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
 - 계획수립 보조금과 연방 금융프로그램 활용, 주정부 환경검토 및 기반시설 설치정책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연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실행까지 통합적으로 지원
 - AGCC 운영모델과 회랑 지정방식에 대한 민간·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적용을 통해 향후 교통용지를 활용한 복합 인프라 구축모델의 확산 기반을 마련
 - 교통부는 AGCC의 사업모델과 회랑 지정절차 등에 대한 정보요청서(RFI)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의견수렴 기한을 2026년 10월 2일까지 연장하여 기업·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
 - 시범 회랑에서 축적된 사업모델·기술지원·인허가 경험과 우수사례를 다른 교통기관에도 공유하여 고속도로·철도 용지를 활용한 기반시설 공동 배치의 확대를 추진

※ 출처 : U.S. Department of Transportation(2026.08), America's Great Corridors of Commerce: Request for Information